

코로나 취업난에 사기까지...취준생들 두 번 운다

절박함 악용 돈 챙기는 범죄 기승...광주·전남 상반기 16건 적발
가짜 합격통보 후 연수비 요구·취업 빚미 신종 대출사기도 활개

“방학인데 코로나19로 대외활동을 하기도 힘들고, 최근 취업사기까지 많다고 하니 답답하고 불안하네요.”

코로나19 장기화에 접어진 채용문 등으로 취업준비생들의 불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청년들의 절박함을 이용하는 사기 범죄도 판을 치면서 취준생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청년 구직자 노린 범죄=20~30대 취준생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취업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3일 광주·전남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2~6월) 특별단속 기간, 광주·전남에서 16건(광주 4건, 전남 12건)의 취업 사기 범죄가 적발됐다.

광주에서는 취업에 도움을 준다는 말에 속아서 4명의 취업 준비생들과 가족들이 뜯긴 돈만 2억 5500만원에 이른다.

A씨는 “대기업 부사장과 잘 아는 사이이다. 현금을 주면 그 댓가로 00자동차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부모로부터 1억 2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가 붙잡혔다.

전남에서도 10명의 청년들이 직장을 구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수천만원을 건네, 결국 사기 피해자가 됐다.

B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겨울 5개월 동안 여수에서 자신이 아산에 있는 건설현장 소장이라며 관리직에 취직시켜준다는 명목으로 10~15차례에 걸쳐 섭외비 등으로 3950만원을 받아 갇힌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 대부분은 자식의 취업을 걱정하는 부모들을 속여 알선비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가로챘다.

C씨는 또 한전 취업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과 굴비 상자 등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D씨는 남편과 오빠를 사립대 직원으로 채용시켜주겠다며 E씨에게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취준생을 상대로 한 신종 대출사기도 활개를 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취업 알선을 빚미로 비대면 대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소비자정보를 발령했다. 취업사이트에 공고를 내고 지원자에게 합격했다고 통보한 뒤 취업 절차로 비대면 연수를 받도록 하고 연수비를 내도록 하는가 하면, 신분증 사진 및 신용도 조회, 업무용 휴대폰 개통 및 보안 앱 설치 등을 요구해 대출까지 받아 돈을 가로챘는 사기 범행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업무에 필요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회사로 반납을 요청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대출이 시행되더라도 인지하기 어렵다”면서 “회사 자체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가짜일 수 있다.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채용담당자 연락처 등을 꼼꼼하게 조회해야 한다”고 했다.

광주경찰청도 하반기 3개월(8월~10월) 동안 취업 사기 등 사기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

◇코로나 취업난에 울고=2년여 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채용 시장에도 찬바람 계속 이어지자 광주·전남 청년들은 취업난에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채용문은 좁아지고 코로나19 여파로 스펙 쌓기도 여의치 않아 ‘졸업을 미뤄야 할 정도’라는 우려까지 터져 나온다.

최근 취업포털사이트 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취준생 13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취준생 92%가 ‘급턴’(구하기 힘든 인턴)이라는 신조어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취준생들은 ‘인턴 공고가 있어도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59.8%)’, ‘인턴 자리를 구하기 어려워(57.0%)’, ‘취업 시장의 어려운 현실을 잘 반영해준 말 같아서(22.9%)’,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21.7%)’ 등이라고 답했다.

전남대 영어교육과 졸업예정자인 양모(27)씨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로 다양한 경험을 하는 대외활동이 부족해, 취업 관련 경험을 쌓을 수 없어 걱정”이라고 푸념했다.

올해 코스모스 졸업(하계졸업)을 하려던 대학생 김모(여·25)씨도 “취업 스펙이 부족한 것 같아 다음해 2월로 졸업을 미뤘다. 봉사활동도 할 만 한 게 없고, 실기수업이나 현장 실습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극심한 취업난에 미취업 청년들도 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취업시험을 준비하는 청년 취준생은 85만9000명에 달했다.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광주·전남 올해 2분기 기준 청년 중 학생 포함 비경제활동인구도 31만 6000명(광주 17만명, 전남 14만6000명)에 달한다.

지역내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던 취준생들은 정규 채용보다 상시 채용 등으로 바뀌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상시 채용은 기업 상황에 따라 아예 신규 인력을 뽑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이들 생각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급증하는 직장 갑질 집중 단속한다

광주·전남 올 상반기 신고 109건...1년새 41% 늘어

광주·전남지역에서 직장 내 갑질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노동청도 직장 갑질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3일 광주지방법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76건에서 지난해 하반기 97건으로 늘어났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107건으로 급증했다. 직장 갑질로 피해를 입었다는 노동자를 신고가 불과 1년 사이에 40.8%가 늘어난 것이다.

신고만 늘어난 게 아니다. 광주노동청이 피해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사례도 지난해 상반기 11건에서 지난해 하반기 22건으로 2배 늘었다. 광주노동청은 올해 상반기에도 진위 여부를 조사한 뒤 6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 인정했다.

당장, 노동청은 지난 4월 26일 노조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배제, 사적업무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광주비엔날레노동조합측의 신고 내용을 조사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노동청은 또 직장 내 갑질 피해 신고가 잇따르면서 오는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직장내 괴롭힘 금지행위 위반 일제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집중 지도·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또는 사업주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 행위에 대해 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노동청은 기간 내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직장인 근무환경 실태조사 등을 통해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단호하게 대처,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조사,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학원생 강제추행한 학원장 구속

학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학원장이 <광주일보 7월 28일 6면> 구속됐다.

광주남부경찰은 3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학원생을 성추행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학원장 A(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시 남

구 진월동 학원 원장실에서 시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제출한 B양 이외에도 다른 피해 사례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장을 접수받은 뒤 혐의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북구청 공무원 단체 헌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3일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사랑의 헌혈행사에서 북구청 공무원들이 단체 헌혈을 하고 있다.

<광주 북구청 제공>

세번째 음주운전에도 벌금형 왜...미성년 3자녀 양육 고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 회사원에게 최고 벌금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하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148조 2)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을 선고할 수 있다. 벌금형으로는 최고액인데, 미성년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이 반영됐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SUV 승용차를 몰고 3km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어선 만취 상태였다.

그는 지난 2017년 11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시간적 간격이 있긴 하지만 A씨는 지난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세번째 적발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행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선고는 처벌이 다소 가벼운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재판부도 선고 과정에서 “실행을 선고해도 할 말 없는 사건”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미성년인 자녀 3명을 양육하는 가장”이라며 “자신의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덕남동, 임야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임야 661㎡, 지분매매

▶ 매매 - 6000만원

오피스텔 신축부지

▶ 신안동, 대지 582㎡(구 176평), 상업지역

▶ 지하1 지상10층, 15평, 72개 허가득

▶ 법인 양도·양수 가능

▶ 분양/임대 100%될 장소

▶ 매매 - 협의

문의. 010-3605-5000